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주된 통신 수단은 인터넷을 통한 e-Mail 입니다. 다양한 사역으로 인하여 모두들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e-Mail을 통하여 서로간의 소식을 날마다 생생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인끼리 e-Mail을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마치 라디오 방송과 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소소한 내용부터 긴급한 일까지 전 선교사들에게 소식을 전파하는 e-Mail 기능은 저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감자 한 자루를 현지 주민으로부터 샀는데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빵보다는 밥이 주식이 된 선교사들로부터 전기 밥솥이 고장 났는데 어디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잠시 집을 떠나 타 지역의 사역지를 방문하는 동안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맡아 줄 사람을 찾기도 하고, 필요한 책을 수소문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e-Mail을 통하여 주고 받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맡겨진 막중한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 구석진 곳에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는 말이 무색하게 선교사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소식들이 매일 매일 끊임없이 들려 옵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못하여 고통을 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아쉬운대로 이곳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큰 도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서도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를 이곳 짧은 생활 중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사역을 했던 젊은 선교사는 뇌에 이상이 생겨서 이곳을 떠나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세한 소식과 함께 중보 기도 요청 e-Mail을 보내 옵니다. 또한 작년 말에 뎅기(Dengue) 모기에 물려서 어려움을 겪은 한 선교사는 이번에는 목과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이곳을 떠나 대도시에서 치료를 받으며 e-Mail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역지에서 태어난 아들의 자폐증으로

인하여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간절한 기도 요청이 e-Mail로 옵니다. 또한 연로하신 선교사들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e-Mail로 끊임없이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 1:29)**

힘든 선교지까지 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삶이 이 땅에서 충분히 보상 받아도 마땅한 축복과 승리의 삶이라기 보다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더 앞드려야 하는 순종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e-Mail의 제목은 'Praise and Prayer (찬양과 기도)'입니다. 비록 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찢찢매는 일들의 연속이지만 저희들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함께 저희들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이 분명 할진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 5:9) 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 5:8)**



1960~70년도에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나라였다고 하는 이 곳은 이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부유했던 집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난으로 빠져들어서 이제는 헤쳐 나올 힘도 없어 보이는 무기력한 상태가 된 것 처럼 보입니다. 작은 방 한 칸에 부모, 자식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함께 생활해야하는 열악한 삶을 살고 있고, 식사라고 이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빈약한 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빈부의 차이가 매우 커서 좋은 집에서 경비원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많은 먼지를 일으키며 좋은 차로 질주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적은 규모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사람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c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들은 남의 일 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제가 도리어 답답해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패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읽은 '나라별 행복 지수'라는 통계에 의하면 이곳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제가 편하게 살아 왔던 나라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곳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방의 부유한 나라 사람들보다 나름대로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저의 기준으로는 행복해 보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고, 또한 자신들의 입으로도 말하기를 30 ~ 40년 전과 비교하여 생활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정말 행복해 합니다.

도시라고 이름 붙이기가 부끄러운 이곳 환경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이곳을 이 어려운 때에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마시는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지금도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곳의 물 맛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때론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곳을 자칭 과일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하고 있으면서도 생선이 귀한 이곳을 본인들은 참치의 본고장이라고 부릅니다. 일식 일찬으로만 식사를 하는 어려운 삶이지만, 흑이라도 옆 집으로부터 맛있는 국 냄새가 풍겨 올 때면 마치 자신이 맛있는 국을 먹는 양 행복해 합니다. 연로하시고, 생활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과 한 방에 같이 살면서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가 우리 나라의 대명사처럼 되었지만, 이들은 'Hinay-hinay lang (천천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소위 '느림의 미학'이 삶 전체에 스며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족과 감사와 가족 사랑과 여유로부터 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시간에 쫓겨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이 이곳에서는 꼭 그러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자신은 말 그대로 Free Country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를 만끽하며 잘 살아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곳에서 이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수 많은 기준들이 도리어 저를 조이며 진정한 자유가 없이 살아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고, 귀하게 생각해 왔던 '가치'들이, 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며 누리는 행복 앞에서 너무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은 풍성한 물질이나 편안한 환경이나 좋은 교육이나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숭고한 가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 확인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 33:29)**

**☞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사역지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들을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그리웠던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사랑의 보답을 날마다 기도로 대신 합니다. (이연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